

'더 융성하는 남원 만들기' 대장정 돌입



남원시가 2일 2023년 시정의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갖고 더 융성하는 남원 만들기를 향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경식 시장은 “올해 남원의 비약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도전하고, 행동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저와 남원시 전 공직자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실천할 것이며, 당당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도 남원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정부의 긴급재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예산을 3,408억을 확보, 사상 첫 본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그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더 융성하는 남원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더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2023년 남원시정설계 방향을 살펴본다.

◆ 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2023년 남원시정의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이 열린 가운데, 최경식 시장이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도약하고 성장하는 도시 구축

민선 8기 최경식 호는 무엇보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도약하는 미래남원구현이 목표다'.

이에 올해 남원시는 정부도 일찌감치 미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포함시킨 드론·UAM산업과 하늘길을 여는 항공산업, 미래식량자원인 곤충산업을 남원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끌 미래먹거리로 선정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에서 시는 IX 드론융합센터 구축과 더불어 올해 10월 전국 최초로 남원에서 2023년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과 제1회 남원 UAM 드론국제 엑스포를 동시에 개최해 호남권의 거점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로서 드론과 UAM 상용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호남권드론 통합지원센터 유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유치, 드론 실증도시 구축, UAM·드론 실증단지 및 홍보전시관 조성, 농생명바이오산업인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남원의 미래 먹거리를 든든히 확충할 방침이다.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글로벌 아트 도시 조성

남원시는 민선 8기 시정추진의 중요한 화두로 앞세우고 있는 '문화'를 통해 올해 남원만의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예술자원을 재창조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

드론·UAM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남원 구현 목표 지역 역사문화예술자원 재창조... 머무르고 싶은 도시 조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교육환경 조성 노력

성으로 머무르고 싶은 남원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그 일환에서 춘향테마파크 리뉴얼, 숲길과 도자를 담은 뮤지엄 신축 등 예술과 자연을 콜렉션으로 한 합파우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남원문화예술의 핵심 아젠다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요천지역맞춤형 통합해전사업을 통해 요천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요천을 상시 축제화해 축제와 빛의 향연이 가득한 공간, 품격 있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

더불어 '남원'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음식특화거리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숙박거리를 조성해 남원시민의 특색을 가진 관광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농민이 잘사는 남원 만들기 구축

시는 올해도 농업이 강한 남원 농민이 잘사는 남원만들기에 전념한다.

그 실천방안으로 남원 프리미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ONE-푸드 전략사업화로 영농소득을

극대화하고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과 함께 청년들에게는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 미래 남원농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은 물론 농산물 수출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확대, 축사 약취저감시설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교육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오는 2026년까지 지리산권 내 남원형 공공신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남원의료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물론 남원의 미래를 밝힐 인재도 양성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인재양성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남원형 인재학당을 건립 운영하고 관내 농업협과 협업체에 예체능 미래인재를 지원할 계획

도 갖고 있다.

이밖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또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영유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키즈랜드 조성 및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완료, 한 단계 높아진 양육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특히 장애인 복지향상,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해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년메이커스 운영,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남원을 만들 계획이다.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구현

한편 남원시는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화합하는 혁신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참이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소통위원회와 민생경제돌봄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뜻을 수렴 소통과 통합,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민 대통합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민선8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일 잘하고 유능한 남원시정을 만들 계획이다.

/남원=김기두기자

▶ 최경식 시장의 포부

“새해에도 시민만 바라보고 땀 흘릴 것”

“2023년 새해에도 저와 남원시 전 공직자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땀 흘릴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이룬 민선 8기 6개월의 성과를 통해 ‘행복한 남원’의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 있었다”면서 “그 희망을 추동력 삼아 새해에도 오직 시민의 발전만 생각하며 더 융성하는 남원의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남원시민 여러분과 더 함께 소통하고, 더 행동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늘 성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면서 “남원 발전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해 올해 공약실천과 현안사업, 미래산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